

[서평]

고든 S. 우드, 『벤자민 프랭클린의 미국화 과정』

The Americanization of Benjamin Franklin
by Gordon S. Wood. New York: Penguin Books,
2005. xvi, 299 pp.

김은형

(강원대학교)

역사학자 고든 S. 우드(Gordon S. Wood)가 쓴 『벤자민 프랭클린의 미국화 과정』(*The Americanization of Benjamin Franklin*)은 출간 이래 거의 10여 년이 되어가지만, 프랭클린에 대해, 더 나아가 미국혁명에 대해 일반인들이 지닌 편견을 단번에 깨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미국학도들의 필독서라 하겠다. 우드가 책의 시작 부분에서 밝히는 대로 프랭클린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은 시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이 인물에 대한 이해는 “성공지향적 물질주의,” “성공에 대한 실용주의적 집착,” “비천한 부르주아의 돈벌이 가치관” 등과 같은 중산층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이다(5). 게다가 우리는 미국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프랭클린을 손쉽게 연관지으며 건국 아버지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아주 당연시하기도 한다(5).

그러나 우드는 프랭클린에 대한 이같은 이해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

기보다 오히려 후세의 시대적 요구, 즉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상업적 사회동력”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분명히 한다(13). 즉 우드는 프랭클린의 이미지가 “중산층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정의할 미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굳어지게 되면서 실제 그의 삶과는 거리가 생겨나게 되었음을 책 전체를 통해 조명한다. 단적인 예로 그는 프랭클린과 쉽게 동일시되는 중산층, 혹은 “중간 부류”(middling sorts)의 신분이 원래 그가 열망하던 계급적 정체성이 아니었음을 밝힌다(55). 사실 프랭클린은 그의 일생의 상당 부분을 귀족이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중간 부류로 복귀하게 된 것은 영국 귀족들과 미국 귀족들의 위계질서에 그의 정치적 열망이 좌초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프랭클린의 미국적 정체성도 사실은 대영제국에 대한 그의 꿈과 자부심이 영국 정부에 의해 조각나버리자 “복수”심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고 우드는 밝힌다(160).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챕터의 제목—“귀족이 되기”—에서 드러나듯, 42세에 인생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프랭클린이 보란 듯이 성취해낸 삶의 목표는 역동적인 중간 부류의 숙련공/상인(tradesman)이 아니라, “여기”를 누리는 전근대적인 귀족(gentleman of leisure)이었다(65). 이는 평등에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와 프랭클린을 동일시하는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분명히 독립적인 사업가가 되어 중간 부류의 신분으로 올라서는 것만 해도 “신분이 비천”했던 그에게는 엄청난 “성취”였을텐데, 그는 연감(*Poor Richard's Almanack*)과 신문 발행, 인쇄업, 인쇄소 분점 등의 사업을 통해 거둬들인 엄청난 수익을 곧바로 자신의 은퇴로 연결시켰다(27). 즉 프랭클린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는 귀족을 자처하며 과학 실험과 공직(civic affairs)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 우드는 “소수 귀족 엘리트가 다수의 평민”을 지배하던 뚜렷이 양분된 전통적 신분 사회에서 프랭클린을 비롯한 “중간 부류가” 아무리 이 경계를 없애며 비약적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이 중간 부류의 사회적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그가 자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한다(35, 55). 실제로 우드가 제시한 한껏 귀족 차림을 한 프랭클린의 초상화는 그가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 전근대적인 신분 상승 방식에 지대한 뜻이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57).

게다가 이와 같이 수익 사업에서 손을 뗀 후에 공직과 과학 실험에 몰두하던 프랭클린의 모습은 자본주의적인 이익에만 치우친 그의 현대적 이미지가 상당히 와전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실 중간 부류에서 귀족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그가 추구한 목표는 필라델피아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복”(felicity)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중간 부류에서 귀족으로 올라서자마자 그는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여 발휘했다(46). 이는 자본주의적 수익 추구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프랭클린의 면모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두번째 챕터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평민에서 귀족으로 다소 불안하게 편입한 그가 공직자로 적극 활약하는 가운데 대영제국의 주요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되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미국과 그를 쉽게 연결짓는 우리의 선입관과 달리, 프랭클린이 그의 인생의 대부분 동안 스스로를 “대영제국의 신민”(British subject)으로 정의하고, 영국왕이 임명하는 왕립주지사(royal governor)와 같은 관직을 얻어 식민지를 통솔하는 정치가가 되는 것을 궁극 목표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프랭클린은 부지런히 로비를 했으며, 그 결과 아들 윌리엄은 뉴저지의 왕립주지사로 임명되었고, 본인도 식민지 우정공사 부총재 직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식민지 연합체(Albany Plan)를 구상하여 영국정부에 제출할 만큼 제국정치의 주요 인사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7년전쟁에서 전방 지역의 국군통수권까지 얻을 만큼 신망을 얻었다. 이렇게 프랭클린은 제국정치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실

제로 어느 누구보다 식민지 사정을 잘 알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였기에 대영제국 아래 미국 식민지를 이끌 핵심 인물이 될 본인의 미래를 그는 자축하고 있었다(81).

하지만 우드는 프랭클린의 정치적 패착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능력에 취한”(full of himself) 그는 대영제국의 전근대적인 위계질서 아래에서 가짜 귀족에 불과한 자신이 토머스 펜(Thomas Penn)과 같은 진짜 귀족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80). 그래서 펜과 같은 귀족 영주에게 세금을 물리려는 식민지 의회의 움직임이 여의치 못하자, 프랭클린은 이 무능력하고 봉건적인 지배층을 내쫓고 본인처럼 능력 있는 신민이 왕과 직접 연계할 정치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직접 영국으로 건너가 펜실베이니아를 영주식민지(proprietary colony)에서 왕립식민지(royal colony)로 바꾸려는 로비를 시작한다. 그는 능력이 출중한 자신이 영국과 식민지의 유대를 강화하는 관직을 맡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우드는 이같이 영국정부를 향한 프랭클린의 다소 비정상적인 정치적 야심과 더불어, 영국에 온 그가 도통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낯선 모습도 생생히 보여준다. 결국 영국의 선진 문화 생활에 취한 프랭클린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돌아가기를 미루면서,” 부인을 버리고 미국의 여론과 민심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만다(97).

그 결과 프랭클린은 식민지인들이 영국이 부과한 세금에 격렬히 저항하는 정치 위기가 닥치자,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한 채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세금을 내주자고 독려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물론 뒤늦게나마 그가 영국정부를 설득해서 인지세 조례(Stamp Act)를 철회하는데 기여하긴 하지만, 이미 그의 정치적 입지는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꿈인 대영제국은 쪼개지기 시작했고, 영국에 홀로 나온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식민지인들에게서 괴리되어 식민지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가 얻으려는 왕의 관직은 가짜

귀족에 불과한 그에게 쉽사리 수여될 기미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프랭클린이 왕에게 과잉 충성을 하려다가 귀족 출신 왕립주지사인 토머스 허친슨(Thomas Hutchinson)을 곤경에 빠뜨리는 실수를 저지르자, 단번에 프랭클린에게 온갖 모욕을 주면서 공직까지 박탈해버린다. 이렇게 하여 대영제국을 향한 꿈에 흠뻑 취해 있던 그는 전혀 의도치 않게,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영국을 버리고 미국인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프랭클린과 미국혁명의 조우는 이와 같이 급작스럽고 전혀 자연스럽지 않게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세 노인은 자신이 대영제국을 향해 70년간이나 쌓아 올린 그 모든 가치관과 재산,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버리고서, 혁명기들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취하며 독한 마음을 먹고 독립전쟁에 뛰어들다. 물론 우드가 말한 대로, 아들이 왕립주사이고 스스로도 왕의 관직을 받았던 프랭클린이 왕의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난무했었기에 그가 더 열렬하게 혁명에 뛰어들었던 건지도 모른다(156). 그러나 막상 미국혁명에 가담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과격하게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미국혁명을 다지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프랭클린보다 30살이나 어린 존 애덤스(John Adams)가 귀족적인 엘리트 정치를 꿈꾸며 보수적인 매사추세츠 주법(State Constitution)을 완성할 때, 이 노인은 혁명에 부합하는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즉 민심을 제일 민감하게 반영하는 정부 형태라 할 단원제(single-house legislature)와 복수 행정부(plural executive)를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도입했다(164). 그러면서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캐나다의 지원을 요청하며, 조지 워싱턴까지 만나는 모든 복잡한 일정들을 노구를 끌고 다 소화해 낸다(164). 그러다가 그는 독립전쟁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또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프랑스로 향하게 된다(170).

흥미롭게도 우드는 프랭클린의 “미국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곳이

미국이 아닌 프랑스였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진짜 귀족이 아니었던 프랭클린이 타고난 귀족들과의 정치 싸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지만, “평등주의적, 반(反)귀족적” 지적 풍토를 즐기던 프랑스 귀족들은 프랭클린을 “소박한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적 단순성”을 상징하는 “미국”이라는 신세계의 아이콘으로서 적극 환대했다(175, 181). 실제로 소박하게 옷을 입고 프랑스 궁정에 등장한 프랭클린은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프랑스 귀족들의 환호를 얻었고, 프랭클린 스스로도 이 촌스럽고 소박한 이미지와 유명세를 완벽히 이용하여 프랑스 궁정에 성공적으로 접근했다(182).

프랑스에서 발휘된 프랭클린의 외교적 역량은 실로 놀라웠다. 프랑스는 프랭클린을 통해서만 미국 정부와 접촉을 하겠다고 여러 번 주장할 만큼 각별히 그를 신뢰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프랭클린만 점점 “가난에 찌들어가는” 프랑스 정부에서 금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192, 196). 우드는 미국에서 점차 입지가 좁아져 가는 프랭클린이 그나마 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그에 대한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힌다(200). 실제로 프랑스의 도움 없이 미국이 절대로 혁명전쟁에서 성공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독립이 사실상 프랭클린의 외교력에 엄청나게 기대고 있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드는 이처럼 화려한 프랭클린의 공적이 오히려 미국 정부에서 프랭클린을 시기하고 따돌리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프랭클린의 기본적인 터전이었던 펜실베이니아에서 그의 인기는 여전했지만, 존 애덤스를 비롯한 중앙 정부 집권자들은 이 노장의 어떠한 공적도 인정하기를 꺼리고, 심지어는 그가 “정부에서 엄청난 금액을 빼돌렸다”는 식으로 몰아가기까지 했다(222). 그러나 프랭클린은 이로 인한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225). 단지 이 80대 노인은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민주적인 치적을 쌓았다. 즉 펜실베이니아 정부가

“재산”으로 대표를 뽑는 “상원”을 설립하려 하자 프랭클린은 이 비민주적 행위를 적극 반대했고, 연방 헌법 위원회에서는 어떻게든 각 지역의 참여한 대립을 묶어 헌법을 성취할 타협을 이끌어내려 호소했으며, 급기야 젊을 때는 당연히 여기던 노예제를 적극 반대하면서 “노예제폐지” 운동을 벌이는 등, 점점 더 급진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시작했다(225, 219, 227). 그리고 귀족 엘리트 출신이 아닌 “젊은 장인들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는 유서를 남기고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230).

그가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존 애덤스를 비롯한 “귀족적 연방주의자들”은 프랭클린의 죽음을 적극 무시하거나 냉대했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국가적 애도를 선언하며 몇 달간 추도문을 낭송했고, 미국에서도 프랭클린을 닮기를 열망하는 “중간 부류”의 장인과 숙련 공들이 “형제 기계공”이었던 프랭클린을 열렬히 추모했다(235, 236). 그러면서 현실 정치에서는 타고난 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던 프랭클린은, 결국 “노동”을 중시하는 중간 부류들, 즉 19세기에 헤게모니를 거머쥔 새 계층의 아이콘으로 채택되며 끊임없이 추앙을 받기에 이르렀다(237). 우드는 프랭클린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패권을 잡은 중간 부류의 “특별한 영웅”으로 부상하게 된 이 역사적인 결과가, 영웅을 따돌리고 매장하려 했던 귀족적 연방주의자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이었다고 평가한다(244, 237). 이와 같은 프랭클린의 “순환” 여정, 즉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장인이자 독립적인 사업가로 성장하고서 대영제국의 귀족을 꿈꾸다 처절히 실패한 후에, 미국혁명을 어떻게든 성공으로 이끌어 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귀족적 연방주의자들의 따돌림을 당하며 다시 “장인”으로 돌아오게 된 복잡한 삶의 과정을 통해, 프랭클린이 의도치 않게 “미국 문화를 지배”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고 우드는 결론짓는다(245, 246).

이와 같이 우드는 매우 새로운 역사적 시각에서 프랭클린의 의의를 부

단히 조명한다. 물론 그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면과 가명을 가지고 자신을 숨기는 데 능숙했던 이 역사적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아직 힘들다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복잡다단한 프랭클린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이 책을 읽은 후엔, 돈 버는 데 집착하는 뻔뻔한 중산층처럼 굳어진 프랭클린의 이미지가 19세기 이후 중산층이 적극 만들어낸 창조적 산물이라는 점, 또 미국성이나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용어로 그를 고정시키기에는 그의 삶의 여정이 너무나 다채로워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으로 고정시키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그의 열망이 대단했고, 자본주의적 돈벌이로 고정시키기에는 공동체에 대한 그의 의지와 정치적 야심이 뚜렷했으며, 근대 민주주의로 고정시키기에는 귀족에 대한 그의 야심이 강렬했고, 주도면밀한 계략가라고만 치부하기엔 혁명 직전에 드러난 그의 정치적 실수가 엄청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84세의 생애까지 안주하지 않고서 점점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온 그의 실험적인 의지가 결국 정치적 오명과 실수에서 그를 구했고, 이로써 그가 미국 문화의 아이콘이자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의 표상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246). 우드는 이렇게 다채로운 스케치 속에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친구처럼 느낄 이 위대하지만 친근한 영웅의 이야기를 담아 독자들에게 영감 어린 선물로 안겨 주고 있다.